

헌책으로 메우던 정신의 허기

“책 앞에서 다시 굶주린 야수가 되고 싶다”

최영철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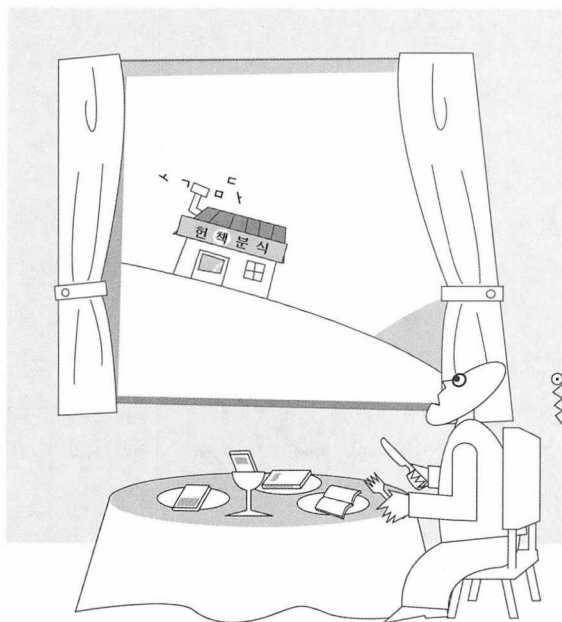
우리집에는 그저 가져가라고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헌책들이 많다. 제본 상태가 너털너털하고 세로짜기에다 본문 활자마저 작아서 다시 읽기에는 여러모로 구미에 맞지 않는 책이다. 그것들을 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만할 때 부산 보수동과 서면의 헌책방에서 샀다. 굳이 새책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참고서는 지금처럼 개편이 잦거나 종수가 많지 않았고 교양도서도 세계명작 위주의 독서여서 헌책방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러는 새책 값을 타내서 일부를 써버리고 헌책을 사기도 했고 용돈이 궁할 때는 그 헌책을 다시 팔아서 충당하기도 했다. 그 시절의 헌책방은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아서 키 높이로 아무렇게나 쌓인 책더미에서 마땅한 책 한권을 찾아냈을 때의 즐거움은 매우 컸다. 더러 표지가 떨어져나가고 색이 바래고 국물을 흘린 자국들이 지저분했지만 그런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책일수록 고서로서의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았고 값도 더 싸다. 때로 앞의 책 주인이 여백에 남겨놓은 내밀한 낙서를 만날 때도 있어서 나도 그 옆에 뭐라고 한두 마디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것은 책을 통해 미지의 선후배가 나는 ‘필담’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보석을 먼지구덩이 속에서 용케 발견했다 하더라도 밖으로 기쁜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다른 참고서 나부랭이와 함께 값을 물었다. 헌책은 사람에게 따라서 아무 쓸모없는 종이몽치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다시없는 보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책방 주인과 그런 미묘한 줄타기를 하던 재미도 괜찮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헌책방들은 꼭 무슨 책을 염두에 두고 찾아갔다 기보다는 십대의 대책없는 외로움과 정신의 허기를 메워보려고 간 곳이었다. 몇 시간 동안 이집 저집을 차례대로 기웃거리며 책을 고르다 보면 그 아득한 절망과 상실감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그 시절의 형편이 다 그랬듯이 번듯한 책방에서 책 한권 사는 일은 쉽게 염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백화점에서 잘 진열된 상품들을 눈요기하는 것만으로도 소유욕의 절반은 충족되듯이 빼곡히 꽂힌 책과 책방에 그득한 종이 냄새만 맡아도 지적 허기의 절반은 충족됐다.

새 책방에 갈 일이 있어도 사고 싶은 책은 주인 눈치를 보며 서서 대충 읽고 나올 때는 가장 값이 싼 문고 한권을 사서 나오는 식이었다. 그렇게 산 문고본이 수백권은 되는데, 아직 그 일부는 내 방 한쪽 모서리에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키높이로 쌓여 있다. 이사를 다니고 집안 대청소를 할 때마다 몇 무더기의 책을 내보내면서도 아직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시 읽으려는 게 아니라 궁핍했지만 절실했던 나의 한때를 잊지 않으려는 다짐 때문이다.

헌책 몇 권에도 금세 배가 부를 만큼 절실했던 그 허기가 오늘의 나를 키운 스승이었다. 느슨해지고 안온해지고 자만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 누렇게 바랜

문고본들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래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 만 단 짓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북개도로가 나고 시내버스가 달리는 서면 도서관 앞을 지나 칠 때마다 나는 저 먼 추억 속의 풍경을 들여다보듯이 목을 빼고 도서관 본관 건물과 뜰을 한번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나의 시립도서관 출입 경력은 중·고교 시절부터 이십대 초반까지 거의 십년에 이른다. 내 방이 따로 없어서 밥상을 펴놓고 책을 읽던 시절에 도서관은 더없이 훌륭한 공부방이었다.

요즘은 도서관이 곳곳에 서고, 야간 자율학습에다 독서실 이용이 보편화돼 예전처럼 붐비지 않지만 그 시절의 도서관 문턱은 굉장히 높았다. 오전 시간을 빼놓고는 항상 만원이어서 매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한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입장해서도 의자에 책받침이 붙은 시정각실 자리 하나에 만족해야 했다. 책상마다 칸막이가 된 일반 열람실은 종일을 거기서 보내는 고참들의 차지였다. 장발에 검은 안경을 끼고 도서관 이곳 저곳을 무료하게 어슬렁거리던 그들을 나는 외경심을 갖고 바라봤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오래된 책갈피를 넘길 때 나는 그윽한 지성의 냄새가 났다.

그러다가 나도 그 고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스무살 때였던가 근 일년 남짓 매일 그곳을 드나들었다. 가방 속에 참고서 몇 권을 넣어 다녔지만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과 소설집을 읽는데 하루를 보냈다. 남의 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나는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던 문제아였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시립도서관의 고참들 중에는 그런 문제아들이 많았다. 내가 까까머리 시절에 외경심을 갖고 바라본 그 학우파들은 겉으로는 대입 재수생, 고시나 취업 준비생 등의 허울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백수들이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인간들이었다.

다른 길을 모색할 용통성이나 엉뚱한 도발을 시도할 용기조차 없던 그 지적 백수들은 다소 소심하기는 했지만 착한 부류들이었다.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 줄 알았던 그 시절의 백수들에게는 철학이 있었다. 하루 종일 신문을 읽는 것이 일어났던 그들이 도서관 뜰의 벤치에 모이면 국내외 정세에 대한 거침없는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하루 몇 백원으로 연명하던 시절, 입석 버스 요금과 도서관 입장료, 날담배 세 개피와 지하 식당의 우동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견디던 시절에 서면 시립도서관은 나와 같은 선량한 백수들을 품어 준 따스한 등지였다.

쉽게 충족되지 않던 지적 허기로 인쇄된 것이라면 광고전단 하나까지도 살살이 읽어내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 나에게 주어진 여건은 너무나 호사스럽다. 하루에도 몇 종의 출판물이 배달돼 오고 컴퓨터를 열면 갖가지 정보를 알아서 볼 수 있다. 매끈하게 정돈되고 호들갑스런 수사로 잘 치장된 것임에도 나는 그 범람하는 정보들 앞에서 어쩔 일인지 쉽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작가 박완서 선생은, 피난 시절 활자에 대한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사방 벽에 도배해 놓은 신문지를 돌아가며 다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와 같은 허기가 지금 내게 있는가 하고 나는 물어 본다. 한두 줄, 한두 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더 이어가지 못하고 던져 버린 책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래서 놓쳐버린 보석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궁핍했던 시절에 책방 주인의 눈치를 보며 서서 읽던 단 몇줄 속에 나의 가슴을 후려치던 촌철살인적 경구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래깃국이나 생선 한 토막도 남김없이 훑아먹고 발라먹던 시절의 식사와 밤늦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깻세라 몰래 찾아먹던 식은 밥 한 덩어리의 절실함이었다. 한권의 책과 만나기 위해 몇 십리 밖의 친구 집을 찾아 다니거나 버스 몇 정류장을 거쳐 책방 이곳 저곳을 배회하고 다니던 시절의 허기가 과연 나에게 아직 있는가 하고 물어 본다.

정보의 홍수,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나의 혀는 미각을 잃어버렸다. 이런 불감증의 혀는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순정소설을 보며 밤을 새우고 눈물 콧물을 짖어내던 순수한 백지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범람하는 말과 활자, 물밀듯이 쏟아져들어오는 달콤하고 현란한 문장들. 어떤 성대한 만찬도 시립도서관 지하 식당에서 먹던 불어터진 우동 한 그릇만 못하고 어떤 호화 장정의 책도 낡은 책갈피 속에서 건져 올린 가슴 저미는 감동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는데, 나의 열망은 지금 식은 죽처럼 시들해진 것은 아닐까. 책 앞에 다시 꿇주린 야수가 되고 싶다. 그때처럼.●